# LG디스플레이, 미혼모 위한 OLED 조명등 전달

## 직접 제작한 조명등·아기용품 전달

LG디스플레이 임직원들이 미혼모를 위한 OLED수유등을 직접 제작하고있다. /LG디스플레이

LG디스플레이는 미혼모 30명에게 임직원 봉사자들이 직접 제작한 OLED조명등과 아기 용품을 전달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봉사활동은 OLED조명담당 임직원들의 재능기부로 진행됐다. OLED조명사업담당에서 플렉서블 OLED 조명패널 30개를 기증하고 상품기획팀에서 미혼모의 수유등을 맞춤 디자인했다.

OLED 조명은 눈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빛 깜빡임 현상과 청색광이 적고 은은한 빛을 내 눈의 피로를 줄여준다. 또 발열이 적고 유해물질이 없어 친환경제품으로도 손꼽힌다.

봉사활동에 참여한 OLED 조명영업1팀 김용진 책임은 "업무로 늘 접하던OLED조명이지만 꼭 필요한 이웃에게 직접 전달할 수 있어서 보람을 느꼈다"며 "작은 도움에도 기뻐하는 이웃들을 보니 봉사가 이렇게 즐거운 것이었나 다시 생각하게 됐다"고 말했다.

/김유진 기자 ujin6326@metroseoul.co.kr

스타필드

# 취약계층 아이들에게 문화체험 선물

스타필드가 새로운 지역친화 나눔실천 프로젝트를 선보이며 사회공헌 활동을 한층 더 강화한다.

스타필드는 오는 8월 1일부터 23일까지 총 14회에 걸쳐 1000명의 취약계층 아이들에게 스타필드 내 스포츠 몬스터 체험, 메가박스 영화 관람, 식사 제공 등의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고 31일 밝혔다.

대상자는 하남시 지역 아동 430명, 고양시 지역 아동 570명 등 총 1000명으로 하남시, 고양시 지역아동센터 및 비영리 단체 등과 연계해 선정했다.

이처럼 스타필드가 새로운 사회공헌 활동을 기획한 이유는 취약계층 아이들에게 꿈을 키울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기 위해서다.

가정 형편상 휴가를 떠나지 못하는 취약계층 아이들에게 여름방학기간 동안 스타필드에서 즐겁게 놀며 다양한 추억을 쌓을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을 하는 것이다.

스타필드는 지난해 말, 하남시 사회복지협의회와 함께 지역내아동센터 12곳 및 봉사단체에 비품 교체 등을 지원해 지역내 어린이들의 꿈과 희망을 키우는 활동도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스타필드 하남. /신세계

안희만 홈플러스 e파란재단 이사장, 배우 김보성, 이종명 한국백혈병소아암협회장(왼쪽부터)이 지난 30일 서울 마포구 한국백혈병소아암협회에서 성금을 전달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홈플러스

홈플러스 e파란재단

# 백혈병 소아암협회에 1억원 기부

홈플러스 사회공헌재단 e파란재단이 백혈병 소아암협회에 1억원을 전달했다.

홈플러스 e파란재단은 백혈병소아암어린이 지원 사업을 보다 색다르고 신선하게 홍보하기 위해 유튜브 인플루언서 '슛포러브'와 협업 영상을 제작해 SNS를 통해 선보였으며, 모금된 1억원을 백혈병 소아암협회에 전달했다고 31일 밝혔다.

유명 유튜브 채널인 슛포러브는 '축구로 세상을 바꾸자'라는 비전을 배경으로 다양한 축구 관련 영상을 흥미롭게 제작해 소아암 어린이를 위한 모금 활동을 진행하는 크리에이터다.

이번에 제작된 영상을 통해 홈플러스 e파란재단은 동영상을 1번 볼 때마다(1 view) 100원을 기부, 100만 뷰 달성 시 최대 1억원을 소아암 어린이를 위해 기부하기로 했다. 해당 영상은 4일만에 100만 뷰를 달성했다.

기부금은 소아암 환우와 가족들을 위해 치료비를 비롯해 소아암 아동, 청소년 및 형제자매를 위한 성장 교육 프로그램, 소아암 부모활동가 양성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조현구 홈플러스 e파란재단 사무국장은 "이번 기부는 전 세계의 관심사였던 축구 관련 동영상을 제작함으로써 흥미를 유발시키고 SNS 채널을 통한 기부활동이라는 새로운 포맷을 통해 누구나 쉽게 기부가 가능했던 새로운 시도의 사회공헌활동이었다"며 "앞으로도 흥미와 접근성을 가미한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통해 더욱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덧붙였다.

/신원선 기자

## 오늘의 운세 8월 1일 (음 6월 20일) http://www.saju4000.com

쥐 — **48년생** 무더위가 시작되니 건강을 조심. **60년생** 마음은 별이라도 딸 것 같으나 자중해야 할 때이다. **72년생** 어디로 가야 할지 갈팡질팡한 하루. **84년생** 강을 건넜어도 배는 소중히 보관해야 다음에 쓸 수 있다.

소 — **49년생** 믿음을 갖고 기다리면 실망하지 않는다. **61년생** 남의 부러움을 살만한 결과를 보게 된다. **73년생** 노란색, 숫자 3이 오늘 행운을 준다. **85년생** 꽃 피고 새가 지저귀니 무엇을 해도 좋은 결과를 보겠다.

호랑이 — **50년생** 가뭄이 해갈되듯 일이 술술 풀린다. **62년생** 우물이 곁에 있어도 두레박을 찾을 수 없으니 답답. **74년생** 어려운 일은 부모님의 도움으로 해결. **86년생** 좋은 결과는 올바른 선택에서 비롯됨을 명심.

토끼 — **51년생** 개나리를 보고도 봄을 못 느끼는구나. **63년생** 고집을 세우면 부모도 외면하는 법이다. **75년생** 새로운 기회가 오니 놓치지 말고 최선을 다해야 한다. **87년생** 금전 문제로 속상할 일이 생긴다.

용 — **52년생** 현실에 만족해야 마음이 편안하다. **64년생** 상대의 작은 실수를 덮어주면 큰 보답으로 돌아온다. **76년생** 마음이 울적하니 친구가 위로를 준다. **88년생** 신세 진 사람의 빚을 갚아야 하는 날이다.

뱀 — **53년생** 많은 꿀을 얻으려면 벌을 키워야. **65년생** 오늘 걸어야 내일 뛰지 않으니 쉬지 말고 전진. **77년생** 아랫사람을 책망 말고 서류를 잘 살펴라. **89년생** 변화가 있는 날이니 새로운 일에 도전해 보자.

말 — **54년생** 지고도 이기는 것이 있으니 때로는 져 주는 것도 좋다. **66년생** 죽은 나무에 물을 주는 것은 시간 낭비. **78년생** 태양은 항상 그 자리에 있음을 명심. **90년생** 머물기도 어렵고 떠나기는 더 어려운 하루.

양 — **55년생** 남의 도움을 받게 되나 시비도 생길 수 있다. **67년생** 재물로 인한 갈등이 생겨도 나에게 유리한 날. **79년생** 예의 바른 행동이 나를 높여 준다. **91년생** 능력 이상의 일도 무난하게 처리할 수 있다.

원숭이 — **56년생** 주변 사람과의 의견 차이로 손해가 발생. **68년생** 계획은 원대하게 세우나 노력이 따르지 않는다. **80년생** 공들인 탑은 쉽사리 무너지지 않는 법이다. **92년생** 구설수를 조심하고 특히 윗사람과의 대화에 주의.

닭 — **57년생** 운이 상승하니 용기를 내어 일을 추진. **69년생** 가족이라도 금전거래는 안 하는 것이 좋다. **81년생** 북서쪽으로 역마의 운이 있으니 여행을 떠나는 것도 좋겠다. **93년생** 때가 왔으니 힘껏 정진하라.

개 — **58년생** 조급함이 화를 부른다. **70년생** 자신 없는 일을 맡아 온종일 마음이 불편하고 좌불안석. **82년생** 발전이 느려 답답하나 오늘은 현상유지가 최선이다. **94년생** 스스로 겸손하면 주변이 알고 도와준다.

돼지 — **59년생** 사랑이 찾아오니 자손에게 좋은 일이 생긴다. **71년생** 일의 결과가 좋아서 명예를 드높이는 날. **83년생** 소금장사 나가는데 비가 내리는 격. **95년생** 새 인연으로 새로운 거래가 성사되니 기쁘다.

# SUDOKU

출근길 두뇌 스트레칭 재미 듬뿍! 아이큐 쑥쑥!

1. 모든 세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2. 모든 가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3. 가로·세로3×3으로 이뤄진 작은 사각형 안에도 1~9의 숫자가 겹치지 않아야 합니다.

| | | | | | | | | |
|---|---|---|---|---|---|---|---|---|
| | | | | | | | | |
| 4 | 9 | 2 | | | | 8 | 1 | 5 |
| 8 | 1 | | | | | | 3 | 7 |
| 1 | 7 | | 8 | | 5 | | 4 | 9 |
| | | | 6 | | 7 | | | |
| | | 4 | | | | 5 | | |
| 9 | | | 3 | | 4 | | | 2 |
| | 5 | | | | | | 8 | |
| | 4 | 8 | | | | 3 | 6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 4 | 6 | | | |
| 6 | | 9 | 5 | 3 | 8 | 1 | | 7 |
| | 3 | 7 | 8 | | 2 | 9 | 6 | |
| 2 | | 8 | | | | 7 | | 3 |
| | 1 | 5 | 3 | | 7 | 2 | 4 | |
| 8 | | 4 | 2 | 5 | 1 | 3 | | 6 |
| | | | 9 | 8 | 4 | | | |
| | | | | | | | | |

스도쿠 정답

| | | | | | | | | |
|---|---|---|---|---|---|---|---|---|
| 7 | 3 | 5 | 4 | 1 | 8 | 2 | 9 | 6 |
| 4 | 9 | 2 | 7 | 3 | 6 | 8 | 1 | 5 |
| 8 | 1 | 6 | 9 | 5 | 2 | 4 | 3 | 7 |
| 1 | 7 | 3 | 8 | 2 | 5 | 6 | 4 | 9 |
| 5 | 8 | 9 | 6 | 4 | 7 | 1 | 2 | 3 |
| 6 | 2 | 4 | 1 | 9 | 3 | 5 | 7 | 8 |
| 9 | 6 | 1 | 3 | 8 | 4 | 7 | 5 | 2 |
| 3 | 5 | 7 | 2 | 6 | 1 | 9 | 8 | 4 |
| 2 | 4 | 8 | 5 | 7 | 9 | 3 | 6 | 1 |

| | | | | | | | | |
|---|---|---|---|---|---|---|---|---|
| 1 | 8 | 3 | 7 | 2 | 9 | 6 | 5 | 4 |
| 7 | 5 | 2 | 1 | 4 | 6 | 8 | 3 | 9 |
| 6 | 4 | 9 | 5 | 3 | 8 | 1 | 2 | 7 |
| 4 | 3 | 7 | 8 | 1 | 2 | 9 | 6 | 5 |
| 2 | 6 | 8 | 4 | 9 | 5 | 7 | 1 | 3 |
| 9 | 1 | 5 | 3 | 6 | 7 | 2 | 4 | 8 |
| 8 | 7 | 4 | 2 | 5 | 1 | 3 | 9 | 6 |
| 3 | 2 | 6 | 9 | 8 | 4 | 5 | 7 | 1 |
| 5 | 9 | 1 | 6 | 7 | 3 | 4 | 8 | 2 |

문제 제공= 보누스

# 김상회의 四季

## 아름다운 도자기 인생의 비밀

마흔 중반의 남자가 회사에서 희망퇴직을 당했다. 눈앞이 깜깜했지만 온힘을 다해 살아날 방법을 찾아다녔다. 장사를 하면 좋은 사주라는 소리를 들었던 기억이 퍼뜩 머리를 스쳤다. 진중하게 상담을 청한 그는 편재격으로 신왕하면서 재물도 왕성한 사주였다. 상업 활동이나 사업을 하면 큰돈을 벌 수 있는 운세가 그에게 있었다. 생전 처음으로 장사를 시작해서 성공한 사장님이 됐다. 서른 후반의 다른 남자는 회사에서 업무 실수로 징계를 받고 지방공장 좌천인사가 났다. 밀려서 내려갔지만 실의에 빠져 지내지 않았다. 전공을 살려 공장의 효율성을 더 좋게 만들려 애썼고 제작공정을 일부 바꾸면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걸 발견했다. 본사에 건의를 해서 시스템을 바꿨고 회사는 5억을 절약할 수 있었다. 그는 건록격 사주로 월(月)에 뿌리가 있어 관운이 좋은 편이었다. 곤경에서도 사주를 제대로 살린 사례였다. 두 사람은 공통점이 있다. 넘어진 곳에서 그냥 주저앉지 않았다는 것이다. 다시 일어났고 더 나은 스스로를 만들어갔다. 상담을 하다 보면 많이 듣는 말이 있다. "왜 나만 이런 일이 생기나요." "왜 내 팔자는 이 모양일까요." 하는 말이다. 그런 생각에 빠져있는 사람들에겐 공통적인 현상이 벌어진다. 자기 자신을 성공으로 이끌지 못하고 한번 수렁으로 들어가면 자포자기에 빠진다는 점이다. 장사가 안 되어 곤경에 처한 업주가 있었다. 위기라고 할 정도는 아니었는데 어쩔 줄 모르고 전전긍긍 했다. 문을 닫을 정도는 아니니 여섯 달만 기를 쓰고 버티라고 했다. 그 때쯤 부터 운세가 달라지는 시기였던 것이다. 몇 번을 말렸는데도 결국 지레 겁을 먹고 문을 닫았다. 스스로 무너진 셈이다. 안 된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조금만 더 기다리면 다가올 운세도 버린 꼴이다. 예전에 도자기 공장에 갈 기회가 있었다. 공장 한쪽에 두 종류의 도자기가 눈에 들어왔다. 한쪽은 윤기가 흐르고 색이 고왔다. 다른 쪽은 겉이 거칠고 볼품이 없었다. 왜 저렇게 차이가 나느냐고 물어보니, 고운 도자기는 뜨거운 가마에서 굽는 과정을 거친 것이고 거친 것은 아직 굽기 전이라고 했다. 뜨거운 불을 이겨내는 과정을 거치며 색이 고운 모습으로 다시 태어난 것이다. 사람의 인생도 다르지 않다. 시련을 거치면 한껏 성장하고 내공이 깊어진다. 시련 속에서 인내의 힘을 기르고 긍정하는 생각을 배운다.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것이다. 조금 힘들다고 절망에 빠지면 안 된다. 시련은 성장의 발판이 된다.

'김상회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회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